

스님이 쓴 스님들의 수행 일화



스님이야기
지록 스님의 14인 지음
여시아문 | 1만2천원

법정·종진·명성 등 85명 스님들의 일상사

고매한 인품 번뜩이는 재치, 재미·감동 전달

세상사가 어지러울 수록 중생들은 수행자에 기대하는 마음이 커진다. 지록·설곡·효림 등 15명의 스님들이 쓴 <스님이야기>는 청정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허전한 마음을 달래 준다. 책에 등장하는 스님들 대부분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지만 그 철저한 수행기풍과 인품 만큼은 독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스님들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이야기가 감칠맛나는 문체에 녹아 있어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스님이 법정 스님의 반응을 보기 위해 스님의 밥그릇안에 고기 몇 점을 넣었다. 그랬더니 이를 눈치 챈 법정 스님이 느닷없이 노처녀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한 노처녀가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만났지만 결혼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지켜온 정조를 아까워서'라는 것이다. 스승의 번뜩이는 대가설법에 지록 스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무엇이 먹고 싶을 때는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정조해 힌트를 주어 표현하는 선사다운 풍모에서부터 발바닥 중간의 웅천혈을 자극하는 나름대로의 건강관리법까지 법정 스님과 스님의 일화가 담백한 글로 소개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젊은 객승이 자신의 사찰에 찾아와도 허리굽혀 인사 하며 어느 도량에서 왔고 은사 스님은 누구인지 물어보는 등 따듯하게 맞아주는 '인욕제일' 지월 스님, 60년대 후반 도량의 무명 옷들을 주워 손수 빨아 두었다가 행자나 옷이 없는 스님들에게 나눠 주었던 흥법 스님, 무예가 뛰어나지만 얻어맞으면서까지 하심에 하심을 했던 대오 스님 등의 얘기를 대하면 감동을 넘어 숙연해 지기까지 한다.

이 책은 스님들의 삶과 치열한 구도열정을 널리 알리고자 2000년 1월1일부터 2003년 8월 6일까지 3년여에 걸쳐 현대불교신문에 소개했던 연재물중 85명의 스님이야기를 선별해 엮은 것이다.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사찰은 일반인에게는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열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는 짐소봉대해 전해지곤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사를 여과 없이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정한 스님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탱해 주는 원이며, 이러한 스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인들이 살맛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되니까 말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신경림 시인과 오현 스님의 열흘간의 만남> (신경림·조오현 지음, 아름다운 인연, 9천8백원) = 신경림 시인과 백담사 무궁선원의 오현 스님이 거침없이, 꾸밈없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은 삶의 깊이와 순수함을 간직한 무욕의 법문과도 같다.

■ <낯잡> (상봉 스님 글·그림, 리즈앤북, 9천8백원) = 전국 1백여 사찰의 탕화를 그린 불교미술 화가 상봉 스님의 시화집. 일상에 대한 성찰이 담긴 시구가 정겨운 풍의 수록화와 어우러져 읽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 <길을 지우며 길을 걷다> (이원규 지음, 좋은생각, 9천원) = 도시의 삶을 버리고 생명평화를 화두삼아 지리산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이원규 시인의 편지형식 글 모음. 삼보일배, 생명평화 순례 등 걸기를 자기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시인이 길 위에서 보고 느낀 바를 담담하게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 <선인들이 남겨 놓은 삶의 흔적들> (허균 지음, 이경재 외 사진, 다룬세상, 1만원) = 장독대, 단청, 서낭나무, 태극문양 등... 너무나도 흔한 것이라 가치마저 평가절하하기 쉬운 우리의 문화유산들이다. 한국적 아름다움과 정신을 연구하는 이답게 예리한 안목과 미적 감각으로 생활 속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 소개하고 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티베트 마법의 서
알렉산드라 다비드 벨 지음
김은주 옮김
르네상스 | 1만2천원



동물의 털을 쓰고 동물신을 체현하는 수도승.

<티베트 마법의 서>는 티베트를 최초로 방문한 서양 여성인 알렉산드라 다비드 벨(문화인류학자, 1868-1969)이 쓴 티베트의 문화·풍속 및 티베트 밀교의 신비한 마술 세계에 대한 소개서이다. 1929년에 출간된 이 책은 티베트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구사했던 서양 학자의 티베트 정신세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저자는 단순히 밀교의 마술이나 전설을 소개하는

서양 여성학자가 체험한

티베트 풍속과 수련법

데 그치지 않고 수련법을 직접 체험해 본다. 그것중 하나가 바로 '롱곰(lung-gom)'이다. 이는 영적·육체적 신통력을 지향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 집중과 호흡법을 결합한 다채로운 수행법을 말한다. 이 수행을 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공중부양'과 '축지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티베트에는 빙설 지대에서 별거뱃사피 하고 겨울을 보내는 은

자(隱者)들이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열을 일으키는 '투모' 수련을 한다. 티베트 밀교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텔레파시도 저자가 체험한 수행중 하나다. 명상을 오래 한 위대한 은자들은 여러 가지 관조적인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결과로 텔레파시를 주고받는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시체를 소생시키는 '탈랑 의식', 저주를 담은 단검 '플바', 죽음의 성찬식인 '초드 의식' 등 밀교의식과 세계의 모든 것이 '신기루'일 뿐임을 깨닫는 명상법에 대해서도 라마승들에게 들은 얘기와 경험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청담 스님을 모르고서

한국불교 안다고 말라



아! 청담
김광식 지음
화남 | 1만2천원

"스님의 수행력, 인욕보살행, 정화정신, 이를 스님의 3대 정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담은 한국의 불교사에 남을 이름입니다." (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이 책은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종회의장, 종정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선학원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을 넘나들며 한국불교 발전에 헌신한 청담 스님과 인연있는 36인의 증언을 대담 집으로 엮은 것이다. 그 인연있는 인사들

가운데 월주 광우 능해 동광 법흥 등 스님들과 심재열 윤정광 우경배 이승택 등 재가 불자와 강원룡 목사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며 청담 스님을 가까이 모셨던 능해 스님(삼화사 회주)은 "스님은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진 소신있는 승려였다"고 술회했다. 청담 스님을 은사로 입산한 동광 스님(前 도선사 주지)은 "이따금씩 내가 거울을 보자, 거울을 또보면 얼굴을 확 그어버리겠다"며 "수행자가 속으로 공부해야지 외모에 신경을 쓰면 어떡하냐"며 야단 맞았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본래 이 책은 도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여성불교>에 2001년부터 3년간 36회 연재한 '청담 스님 신도 타종교인 등 36인 청담 스님과 인연 증언'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란 제목의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이 연재를 기획한 것은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청담 스님을 모르고서는 한국불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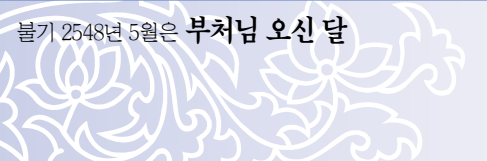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
2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3	잡나	해거 스님	선문출판사
4	육조혜능 평전	이은 윤	동아사이아
5	선, 문밖에 나서다	해탈 스님	여시아문
6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7	정정도론 1	붓다고사	초기불전연구원
8	탁발한 스님의 금강경	탁발한	장경각
9	불교의 이해와 수행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화	동승동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법문 : 대원 문재현 선사님(원강 선사님 인가제자)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사단법인 **대한불교 불이종**

종정 **김성공** 대종사
사서실장 강학운

원로원장 **김법공**
 중앙총회 의장 **서갈평**
 중앙총회 부의장 **이혜중**

총무원장 **민법묘**
 사무국장 **황수기**

총본산 : 용곡사 내 총무원 TEL 055)572-0209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840

大韓佛敎 禪宗

宗正 **朴浩永**

元老議長 **金鶴洙**
 宗會議長 **金在洪**
 總務院長 **金光雄**

總務部長 **性海** 教務部長 **性喆**
 財務部長 **海日** 社會部長 **度性**
 監察部長 **法性** 禮敬室長 **一禹**
 司書室長 **法草**

■ 總本山 : 浦項市 北區 興海邑 七浦里 607 大願寺 TEL 054)261-2396 / FAX 054)261-6119
 ■ 總務院 : 慶州市 忠孝洞 山199-5 永興寺 TEL 054)745-2731 / FAX 054)773-4326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등록 제141호 (한불총02-44호)
 大韓佛敎 禪宗 任員 一同